



말 말 말 위!!!

“저녁 초청연주 좋았고 시간이 넉넉해져 좋다. 점심시간도 여유있어 좋다. 피아노 듣고 싶어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쉼디랑 반주법이랑 오르간 수업 있어 좋았다.” (서미영)

“작년보다 좋은 연주가 많아져서 좋았다. 그리고 강사들이 열정적인 강의 (대구 중앙교회 강운해)

“교수님들 열정이 너무 좋다.”(이항덕)
“리딩세션 다 못들어서 아쉽다.”(무명)
“해마다 유익한 것 보고 느껴 감사하다. 더 바랄거 없다. 해마다 오시는 분들이 똑같은 강의 접하지 않게 업데이트 해주셔서 참 좋다.” (민종욱)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 찾으니까 지루한 면 덜하고 여유있어 좋다. 악보 집에서 보고 선택할 수 있어 좋고 세미나의 여러 시도가 좋다.” (성나영)

“매우 유익하고 적제 적소에서 강사들의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좋다.” (한영남)

“세미나라 전문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갖게 된다. 점심 다하지만 역사와 찬양의 깊이를 알게되어 좋다.”(북광우)

“항상 유익하고 귀한 시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현대 찬양 CCM 양정식, 김선아 지휘법이 특히 좋았다. 만족한다.” (김용은)



말 말 말 아래!!!

“작년에 이어 참석하는데 합창에 대한 사명감이 생긴다. 전공이 아닌데 발성과 지휘법, 음악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다. 내년엔 더 기대된다. 현재 성가대원인데 기왕이면 더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싶다. 아쉬움이라면 스텝과 본부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듯하다. 같이 온 분이 주차장의 장애인 구역에도 주차가 된다고 해서 주차했다가 딱지를 받았다.” (박근섭)

“휴가를 항상 세미나로 보낸다. 세미나가 감동적인 부분도 있으나 보양할 부분도 보인다. 선택수업이 너무 많아 다 못 듣는 것이 아쉽다. 한쪽 쉼터 현상도 있었다. 식사도 좋았고 친절해서 좋았다.” (오혜숙)

“CCM수업이 아주 좋았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서 찬양대와 찬양팀이 각기 찬양을 하고, 워십 댄스도 한다. 또 고전 성가와 CCM성가를 문제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고미정)

“작년에 비해 매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있어 좋다. 저녁 찬양음악회가 특히 좋았다. 그리고 수업이 잘 나뉘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책이 너무 무거워 들고 다니기 힘들었다. 수업은 명찰을 들고 들어가야 하고 가방을 맡기려면 거기도 명찰을 맡겨야 해서 가방을 맡기면 수업에 못들어 간다니 아쉽다.” (무명)

“바뀐 것이 별로 좋지 않다. 리딩수업이 선택이 되어 갈등이 생겼다. 못들은 책들이 아쉽다.”(김상현)

“동선이 길어서 많이 돌아다녀야 해서 힘들었다.” (이운경)

“세미나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유익한 정보가 기대된다. 저녁연주는 환상적이었고 여러가지 특징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 (조길연)

“17년째 매년 오고 있다. 이번엔 우리교회에서 8명이 왔다. 우리 모두는 매일 아침 경건회에 참여했는데 은혜롭고 참 좋다. 리딩수업도 시간이 넉넉해서 좋았다.” (유환일)

“이번 세미나의 다양성이 참 좋았다. 찾아가서 공부하도록 한 시스템이 좋았고 식사가 아주 맛있었고 좋았다. 수업 퀄리티가 매우 높아지고 다양해져서 자기 메뉴에 맞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김충선 목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1:1)



특별호 외 3호
2019년 8월 1일
발행인 이기선
편집인 김용훈



할렐루야! 제52회 교회음악 하계대학 2019년 <획기적합창세미나>가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일정을 배려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교회음악협회 이사들과 모든 스텝들에게도 같은 감사를 드린다.

셋째 날은 각 단계별로 준비된 지휘법 강습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헌신적 강의와 열정적 배움은 앞으로의 한국 교회음악을 밝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둘째 날에 이어 계속된 분반 공부 또한 배움의 즐거움과 감사가 넘쳤다. 여섯 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진 리딩세션은 새로운 성가들을 소개하였는데 강사들이 지휘자들을 배려하여 각 곡의 지휘법을 정성껏 소개하며 수업의 질을 높였다. 오후에 이어진 선택수업 또한 어제에 이어 각 분야별로 깊이 있는 강의가 계속되었다.

저녁 초청연주는 획기적 세미나의 백미였다. 첫 날과 둘째 날의 초청연주가 최고 전문가들의 음악이라면 셋째 날의 찬양 페스티벌은 성가연주의 새로운 모범이 되었다. 소망교회 에벤에셀찬양대, 강서제일교회 할렐루야찬양대, 영락교회 갈보리찬양대,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찬양대, 사랑의교회 영광찬양대, 그리고 윤학원장로가 지휘한 연합찬양대의 찬양은 사랑의교회 본당을 천상의 울림으로 가득 채웠다. 청중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모두 기립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여기 모였던 교회음악인들을 통해 이러한 은혜가 전국의 모든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7천여명이 참여한 3박4일의 찬양축제!

52회 <획기적합창세미나>는 내년을 기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 이번 세미나는 마감 하루 전인 수요일 저녁 8시 현재 집계로 참가인원 976명, 협회 이사 및 강사 100여명, 스텝 52명과 첫날 합창 마라톤 12개팀 400여명, 초청연주 9개팀 300여명, 수요일찬양축제 5개 찬양대 600여명, 그리고 3500여 사랑의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연인원 7000 여명이 참가한 찬양의 대 축제가 되었다.

